



은행 (Positive)

1월 연체율: 모수 효과도 없이, 완연하게 둔화

▶ Analyst 김도하 doha.kim@hanwha.com 3772-7479

국내은행의 2026년 1월 말 연체율은 0.56%(+3bp YoY)로, 근 38개월래 최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가계 연체잔액은 높은 대출금리 부담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월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연체율 상승폭의 완연한 둔화는 모수 효과가 아닌 연체 둔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중 업종 연체율이 YoY 개선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합니다.

국내은행 1월 말 연체율 0.56%(+3bp YoY)로 상승

- 국내은행의 2026년 1월 말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 기준)은 0.56%(+3bp YoY)로, 근 38개월래 최저 상승폭을 기록 (그림 1~6)
- 법인 중소기업 연체율은 0.89%(+7bp YoY), 자영업자 연체율은 0.71%(+1bp YoY)로, 전체 중소기업 연체율의 상승폭이 2022년 말 이후 최저 수준까지 하락. 변동성이 높은 대기업 연체율은 0.13%(+8bp YoY)로 여전히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냄
- 가계 연체율은 0.42%(-1bp YoY)로 44개월 만에 YoY 변동폭이 음수로 전환됨. 신용 등 일반대출(0.84%)과 주택대출(0.29%)이 모두 전년 동월과 같은 수준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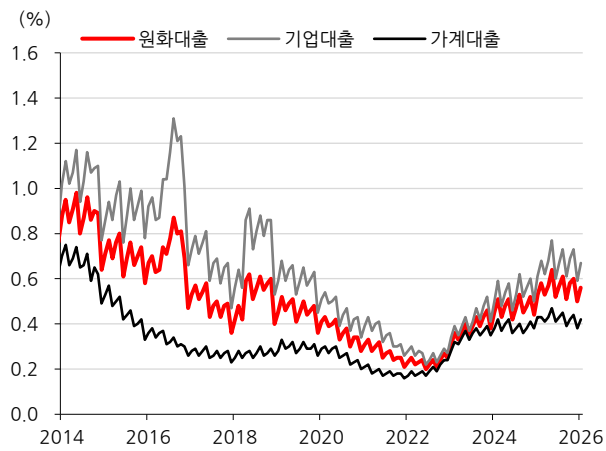
전년 동월 수준의 가계 연체잔액

- 은행업종 연체채권 잔액은 1월 말 13.6조원(+9% YoY)으로 추산 (그림7)
- 1월 중 발생한 신규 연체는 2.8조원으로 전월(2.4조원)보다 증가 (그림9). 연체채권 정리(상·매각) 규모는 1.3조원(+30% YoY)으로 증가했으나, 연체 정리율은 예년의 1월과 유사한 수준 (그림10)
- 기업 (추정): 1월 말 기업 연체잔액은 +14% YoY로 추산. 이 또한 38개월래 가장 낮은 증가율. 연체율 둔화를 위해서는 법인 중소기업 연체 증가율의 추가 하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 2025년 하반기부터 +20~30% YoY를 나타냈던 법인 중기 연체잔액이 10%대 YoY 증가율로 하락함. 자영업자 연체잔액은 대출 성장의 둔화에 발 맞추어 2%대까지 증가율 하락을 나타냄 (그림12)
- 가계 (추정): 1월 말 가계 연체잔액은, 높은 대출금리 부담에도 불구하고, +0% YoY로 추산 (그림12)

모수 효과도 없이, 완연하게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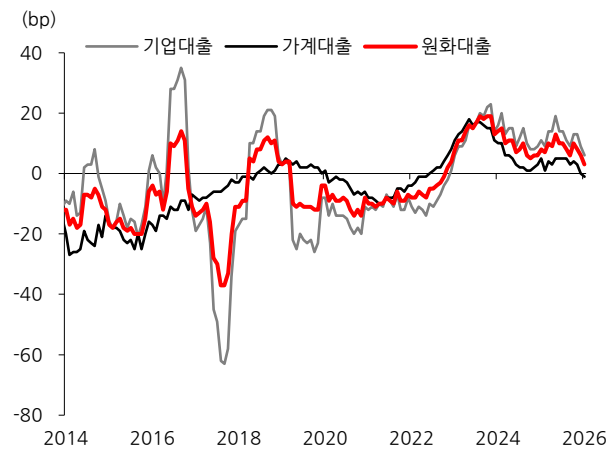
- 2026년 1월 말 원화대출 증가율은 기업 +4% YoY, 가계 +3% YoY로 나타남. 기업은 아직 연체 증가율이 대출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으나, 가계는 대출 취급금리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연체 증가가 확연하게 둔화됨
- 이는 연체율의 상승폭이 완연하게 둔화된 것이 모수 효과(대출 증가)가 아닌 연체잔액의 증가세 둔화에서 비롯된 것 의미. 계절성을 감안한 3개월 이동평균 연체잔액도 지난 2025년 7월을 고점으로 회보 후 소폭 감소를 나타냄 (그림7)
- 2026년 중 은행업종의 연체율이 개선(YoY) 추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함. 대출 성장 부진에도 연체 잔액의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연중 연체율 상승 속도가 둔화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 한편 4Q25부터의 시장금리 상승이 건전성 부담으로 전이되는 시점이 변수가 될 전망

[그림1] 국내은행 차주별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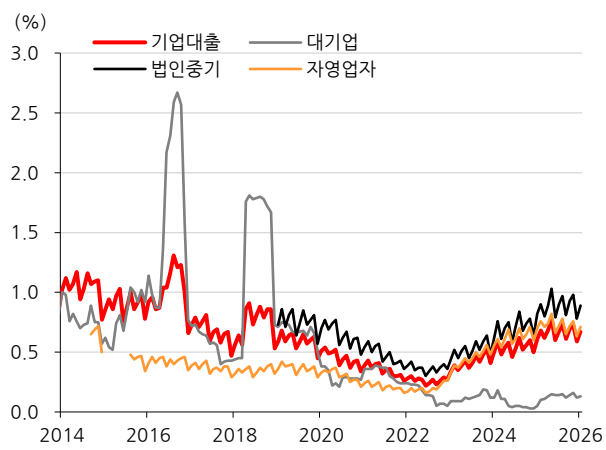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국내은행 차주별 연체율의 YoY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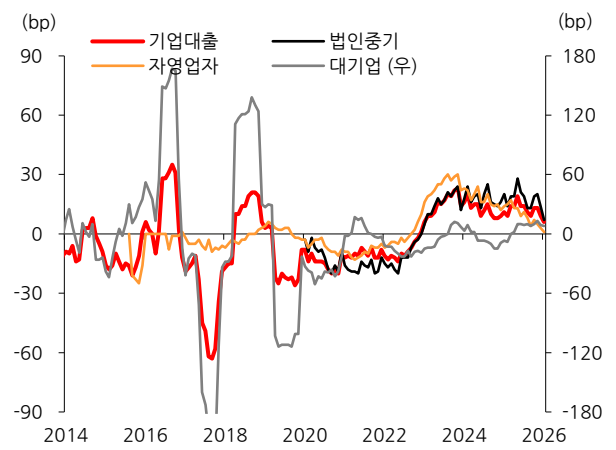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기업대출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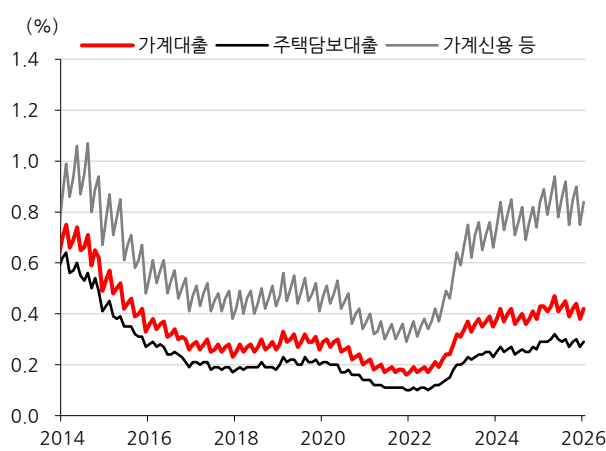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기업대출 연체율의 YoY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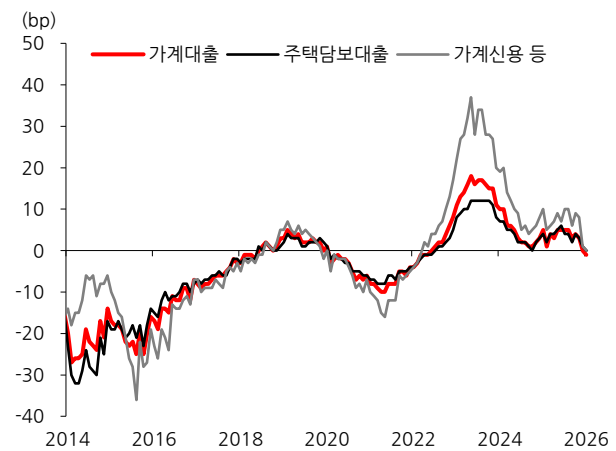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가계대출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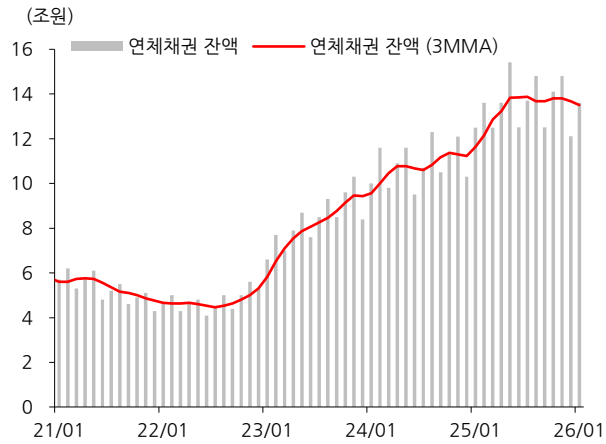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가계대출 연체율의 YoY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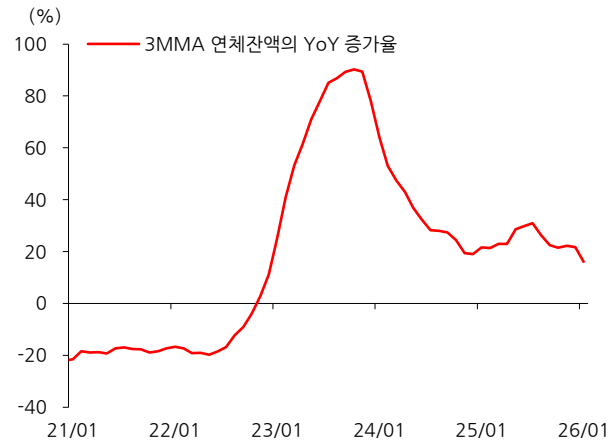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국내은행 연체채권 잔액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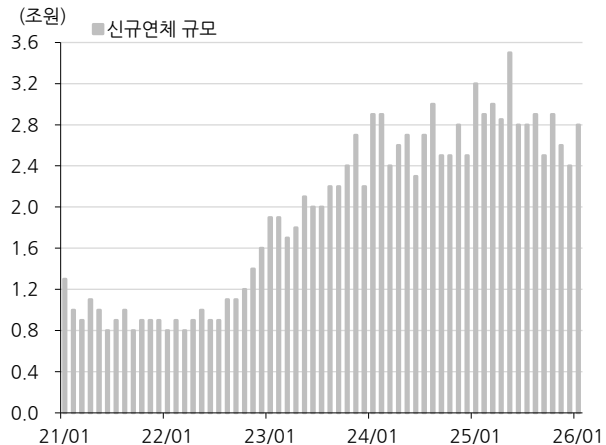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3개월 이동평균 연체채권 잔액의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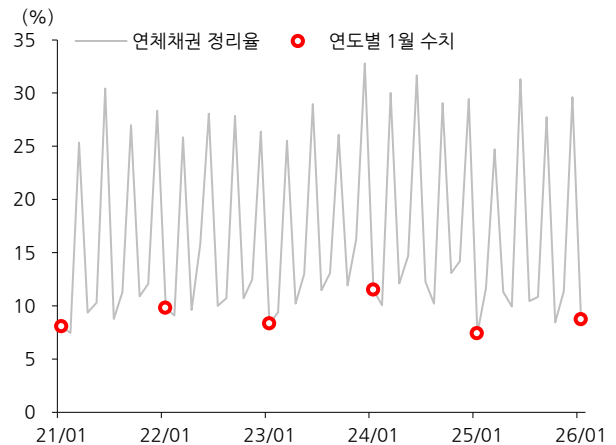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국내은행 월 중 신규 연체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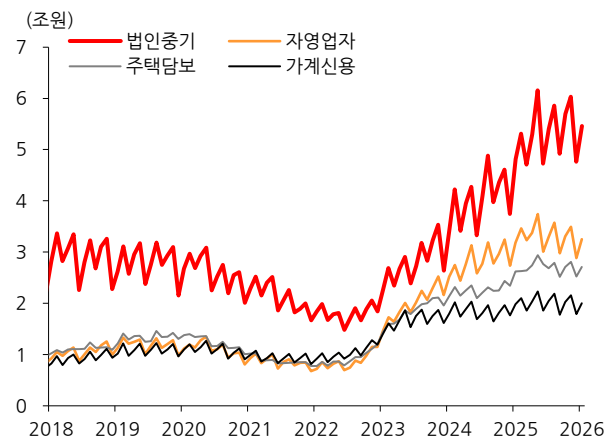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월 중 연체채권 정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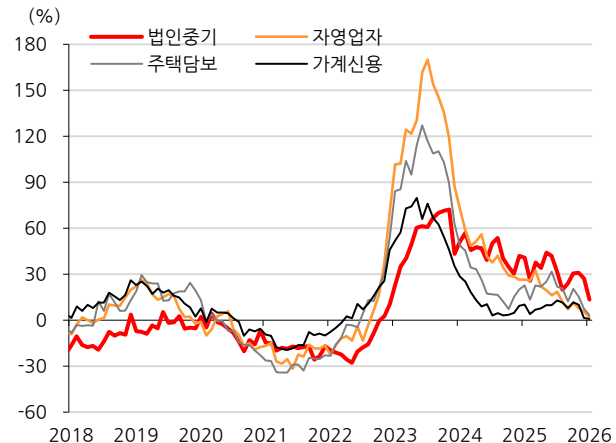
주: 당월 정리 규모/(전월 연체잔액+당월 신규연체)의 비율로 산출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차주별 연체채권 잔액 규모 (추정)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차주별 연체채권 잔액의 YoY 증가율 (추정)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공표일: 2026년 3월 23일)

이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에서 다른 종목과 관련해 공표일 현재 관련 법규상 알려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도하)
 저희 회사는 공표일 현재 이 자료에서 다른 종목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종목 투자등급]

당사는 개별 종목에 대해 향후 1년간 +15% 이상의 절대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Buy(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절대수익률 -15~+15%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Hold(보유) 의견을, -15% 이하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Sell(매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밸류에이션 방법 등 절대수익률 산정은 개별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에 따르며, 목표주가 산정이나 투자의견 변경 주기는 종목별로 다릅니다.

[산업 투자의견]

당사는 산업에 대해 향후 1년간 해당 업종의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Positive(긍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1년간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utral(중립적) 의견을, 과거 수익률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gative(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수익률 전망은 해당 산업 내 분석대상 종목들에 대한 담당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판단에 따릅니다.

[당사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부여 비중]

(기준일: 2025년 12월 31일)

투자등급	매수	중립	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중	87.0%	13.0%	0.0%	100.0%